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벤처 윤리경영 평가모델 개발

협회는 11월 29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협회 임원진,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윤리위원회 확대간담회를 열었다. 윤리위원회는 제2의 벤처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으로 윤리경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윤리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용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은 평가틀(tool)이 개발되고 실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세부적인 인센티브 부여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평가틀의 공동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 김일섭 교수



기조발제자 홍길표 교수

윤리경영의 국내외 동향과 필요성에 관한 기초발제

홍길표 교수(천안대학교)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미국윤리임원협회인 EOA 등을 중심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국제표준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ISO 8000이나 ISO 14000과 같이 앞으로 그 표준안을 준수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해 질 것으로 예상돼 윤리경영의 중요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윤리경영에 필요한 제도 확산이 미흡하다. 이런 변화의 추세를 인정하고 윤리경영을 시급한 경영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건의

기초발제 후 이날 확대 간담회에서는 윤리경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화두로 자리잡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관련기관들로부터 전문가를 차출, 테스트포팀을 만들고 여기서 윤리평가모델을 개발, 이를 각 기관이 다양한 심사에 공통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평가모델이 개발되면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은 코스닥심사나 보증기관의 금융기관대출 보증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협회는 지난 8월 가점 부여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정한 윤리경영 측정지표의 개발방안을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관련기관은 클린벤처캠페인과 관련해 벤처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윤리경영 실천기업에 대한 검증 및 인증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는 이에 동의하며 수용가능한 검증 툴의 개발을 위해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건의했다.

윤리경영 실천방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입장

허노중 위원장(코스닥위원회)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은 사실상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어 아직까지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은 21세기 산업사회의 화두임을 직시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경영 평가시스템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신호주 대표(코스닥증권시장) 현재 벤처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일부 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결국 윤리경영을 기업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 기업이 부담해야할 윤리경영확산의 관건이다.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윤리경영 실천기업뿐만 아니라 지주대상기업이나 스타벤처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인구 이사(기술신용보증기금) 객관적인 평가의 선행없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윤리경영 검증과 인증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영가능력지수 상향 조정부분이나 벤처기업 투자설명회 개최시 우선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우선 고려해야겠다.

조인제 이사(신용보증기금) 2003년말 현재, 신보는 3000여개 벤처기업에 약 1조95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현정부 정책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적극적으로 하되 부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신보 역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객관성 실현을 위한 평가기관 설립을 협회 차원에서 주관해 진행하면 적극 동참할 용의가 있다.



허노중 위원장



신호주 대표



이인구 이사



조인제 이사